

#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深い河)』에 나타난 진정성 추구 여행 모티브

변찬복\*  
byunim@anyang.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 <깊은 강>의 진정성추구여행 모티브   |
| 2. 진정성추구여행의 재논의 | 3.1 서사구조와 서사 공간 요약       |
| 2.1 진정성의 의미     | 3.2 소설에 나타난 진정성추구 여행 모티브 |
| 2.2 진정성추구여행의 의미 | 4. 나가는 말                 |

主題語: 진정성(Authenticity), 본래성(Eigenlichkeit), 원형(archetype), 서사공간(Narrative Space), 숭고(Sublime), 영성(spirituality), 카타르시스(catharsis)

##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sup>1)</sup>의 소설에 관한 연구는 작품의 순수한 문학적·미학적 가치보다는 작가의 종교적 번민과 등장인물들의 신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왔다(김승철, 2016, 육근화, 2000;2017)<sup>2)</sup> 실제로 가톨릭 신자인 엔도는 다른 신에 대한 이상숭배를 허용하지 않는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죽음과 같은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신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보듬어 주는 신을 상상하였다. 때문에 『침묵』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면서도 죄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는 아버지 신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이

\*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1) 본고에서는 엔도 슈사쿠(2007)『깊은 강』유숙자 역, 민음사, p.338. 원전 『深い河』遠藤周作『遠藤周作全集4』新潮社(1999)을 참고하였다.

2) 김승철(2016)『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 흔적과 아픔의 문학』(19), 『기독교사상』293호, 대한기독교서회, pp.119-135

육근화(2000)『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론: 종교 다원주의적 신앙관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9, pp.341-356

육근화(2017)『엔도 슈사쿠 작품에서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고찰』『일본문화학보』72, pp.113-130

충만한 어머니 신 개념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엔도 초기 작품에서는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독교를 종교 다윈주의 혹은 범신론의 대척점에 위치시키고 순교와 배교라는 종교적 갈등 관계를 소설의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천주교나 기독교는 신자들이 종교적 수행 과정에서 불교,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관련된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엔도의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와 범신론간의 상호 배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특히 범신론이 절대적 타자로서의 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 인간과 신이 공존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서양문명을 이끌어 온 기독교와 보편적인 영성 수행인 범신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유기체적 세계관이 병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에서 로드리고가 배교를 하고, 『깊은 강』에서 오쓰가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인해 프랑스 수도원에서 배척당한다는 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윤나리(2016)는 현대세계를 사는 작중인물들의 근원적인 고독과 공허를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고 갠지스 강으로의 여행을 통해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함으로써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sup>3)</sup> 이영화(2019)도 오쓰가 구원의 상징인 예수에 대한 신앙을 ‘신앙이 아니라’한 대화에서 신에 대한 맹목적이고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신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sup>4)</sup> 사실 『깊은 강』의 등장인물들은 아내와 전우의 죽음과 위중한 병으로부터 살아남음, 혹은 마음의 어둠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예 종교가 없거나 불교를 믿는 일본인들이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을 여행자로 보고 여행의 동기, 여행경험의 유형, 여행을 통한 내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깊은 강』을 어떤 특정 종교를 상징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등장인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삶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깊은 강』은 배우자나 전우의 죽음 혹은 치명적인 병마로부터 살아남은 사건을 겪으면서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한 등장인물인 이소베(磯辺), 나루세 미즈코(成瀬美津子), 누마다(沼田), 기구치(木口)가 인도 여행을 하는 서사로 구성된 일종의 여행소설이다. 『깊은 강』에 나타난 여행은 지인들의 죽음과 자신의 살아남음, 그리고 자아 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내려는 의지를

3) 윤나리(2016)「엔도 슈사쿠의『깊은 강』연구 : ‘기억’의 재생과 ‘삶’의 해체」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16-32. 윤나리는 등장인물들이 인도 여행을 통해서 내면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무의식의 의 여행으로 간주함으로써 융(Carl Jung)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4) 이영화(2019)「엔도 슈사쿠 문학의 종교에 대한 틀 깨기」『일본근대문학연구』63, pp.87-102

답은 여행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부재한 현대세계의 일상성에 대한 저항과 존재론적 물음에 의해 개시되는 진정성 추구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인도 여행을 하나의 진정성 추구 여행으로 보고 어떤 양상의 진정성 모티브가 구현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진정성의 철학과 진정성 추구 여행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진정성 추구 여행의 재논의

### 2.1 진정성의 의미

진정성(authenticity)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심어린 태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진정성은 타인의 시선을 통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태도로서 포괄적인 이성적 판단 없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에 순응하려는 대세지향적인 태도와 대척점에 위치하는 가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과 윤리는 모순을 포함하기 마련이며 구성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사회적 틀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진실성과 사회적 에토스와의 갭으로 인해 자기 소외(self-alienation)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반해 진정성은 외부로부터의 가치코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이나 자기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태도이다. 성실성(sincerity)이나 정직성(honesty)이 특정사회의 사회적 원칙과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일 때 드러나는 성향임에 반해서 진정성은 지속적인 자기되기, 자기 초월, 자기 창조라는 역동적인 변혁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파토스(pathos)이므로 기존의 가치체계와의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sup>6)</sup> 다시 말하면 성실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윤리에 완전히 순응하여 내면적 자아 사이에 어떤 간극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반해 진정성은 사회의 지배적 윤리와 개인의 자기 진실성 사이에 괴리를 인식하고 문제 삼는 태도이다.

5) 본고에서 ‘진정성 추구 여행’은 변찬복(2015)의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여행을 개시하고 여행 장소와 대상에 대한 사유와 해석을 통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행”이라는 정의와 Cohen(2004)의 “여행을 통해서 정신고양과 실존 의식을 기획하고 궁극적으로 존재론적 변화에 이르는 여행자”라는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다.

6) Golomb, J.(1995), In Search of authenticity, from Kierkegaard to Camus, NY, Routledge. p.8

엄밀히 말해서 진정성은 어떤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진실한 마음, 즉 인간 삶의 보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진정성은 어떤 가시적이고 확정된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진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지배적인 에토스(ethos)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자기다움을 형성하는데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성은 근대에 들어 이성 중심주의와 과도한 물질주의로 인한 이성의 도구화와 문화적-공간적 소외현상에 대한 대항사유로 등장하였다. 풍요의 사회인 21세기를 사는 경제인간에게도 도구적 이성과 자기소외의 확산, 그리고 진정한 삶의 해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주체로 부상한 경제인간들은 자본축적을 위해 삶의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이 생존으로 격하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를 심미적으로 하려고 한다. 오늘날 육체적 고통과 불편함을 오롯이 직면하면서 자기성찰과 자기실현을 위해 하는 오지여행과 장거리 도보여행도 일종의 심미적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진정성 추구 여행의 의미

관광학자 Cohen(2004)은 여행을 통해서 정신고양과 여행자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를 기획하는 여행자를 실존적 여행자로 정의하였다. MacCannell(1976)은 자기성찰과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관광객들을 세속적 순례자(secular pilgrim)로 지칭함으로써 여행을 제도권 종교에서 수행하는 순례의 대체현상으로 보았다. 이처럼 여행에 있어서 진정성은 여행자의 존재론적 사유와 종교성을 넘나드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진정성이라는 말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가 주장한 본래성(Eigenlichkeit) 혹은 자기성(Selbigkeit)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인간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본래성을 현존재의 개별성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성질로 사용하고 본래성의 대응 개념인 비본래성을 “평균적 세인들이 대체로 빠져있는 일상성(Alltäglichkeit)”으로 설명하였다.<sup>8)</sup> 하이데거에 의하면 본래성에는 자기 자신의 있음 그 자체를 염려하는 마음인 불안(Angst)을 소환하는 것, 죽음을 앞서 달려가 봄으로써 본래적인 실존을 수행하는 것과 양심의 부름에 응하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일상적 삶은 잡담, 호기심과 애매함으로 점철된 편안하

7) 조정환(2015)『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pp.37-38. 자기 자신의 신체, 노동 그리고 삶 전체를 자본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수익성 있게 관리하는 사업가적 인간을 경제인간(homo economicus)으로 볼 수 있다.

8) 조규철(2002)「하이데거의 사유근원과 현존재의 본래성」『철학논총』30, pp.379-399

고 안정된 삶을 말한다. 따라서 현존재는 자신의 결단으로 본래적 삶을 살든지 아니면 비본래적 삶을 살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학자들은(Wang, 1999; Steiner & Reisinger, 2006) 하이데거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여행경험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여행자는 현대세계의 일상적 삶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존재론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행을 개시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일상적인 삶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안온한 삶에 빠져들기 아니라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감당해야 하는 불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있음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사람다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미리 달려감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해 본래성(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같은 맥락으로 진정성 추구 여행은 현대세계의 비본래성 혹은 비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성의 회복을 기획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진정성 추구 여행에는 일상적 삶에 대한 대항 사유와 존재론적 변화라는 두 가지 필수 요인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정성 추구 여행자들은 비루한 안온함과 위선에 빠져 비 본래적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존재론적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다가 예기치 않은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무의식이 발현 되는데 당사자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가장 열등한 모습인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다. 진정성 추구 여행자는 그림자를 대면하면서도 타자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활동을 통해 정신 고양이나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부류의 여행자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본래성에 근거하면 진정성 추구 여행은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여행을 개시하고 여행 장소와 대상에 대한 사유와 해석을 통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9)

『깊은 강』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은 모두 내면에 깊은 상처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영적 성장을 이끌어낸 진정성 추구 여행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쓰코는 시골에서 도쿄로 와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튀는 행동을 일삼는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이따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곤 자기혐오에 휩싸이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감정을 외부의 타인을 퇴락의 길로 빠뜨림으로써 쾌감을 얻기도 한다. 융의 심리학에 근거하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들은 의식적 자아가 수행하는 페르소나이며 자기혐오의 감정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은 무의식이 수행하는

9) 변찬복(2015) 「진정성 추구 여행의 미학적 담론」 『인문과학연구』 23, pp.427-447

그림자에 해당된다.<sup>10)</sup> 미쓰코는 항상 남에게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페르소나가 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성적문화적 취향이 전혀 다른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가 남편에 투사되어 얼마 안 있어 이혼한다. 그러나 인도여행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주는 차문다 여신과 오쓰(大津)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남을 퇴락시키는데 이용하는 대신 자아 성찰에 이용함으로써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진정성은 영성이나 종교성과도 연결된다. 영성(spirituality)은 성스러움을 향한 주관적 경험으로서 승화된 가치들을 지향하는 초월적인 삶, 혹은 의거하여 살아가야 할 가장 깊은 가치와 의미들을 말한다.<sup>11)</sup> 종교성 역시 초자연적인 절대적 타자를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성이나 종교성 모두 가시작물질적 현실세계를 넘어서서 보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신적 작용이기 때문에 특정 제도권 종교에 귀의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심성이라 할 수 있다.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종교의 본질을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며 무한자인 우주가 유한자인 인간 가운데 존재하는 사태라고 하였다.<sup>12)</sup> 그는 종교를 어떤 불변의 체계화된 교리에 종속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항상 새로운 의미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융(Carl Jung, 1875-1961)이 제시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종교성과 영성이 인간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고 의식은 자아가 통제하는 영역이며 무의식은 자아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또한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거짓 없이 말하고 행동케 하는 태고의 모형인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the self)는 자아(ego)와 달리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면서 페르소나와 그림자, 원형과 본능, 그리고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통합하고 합일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융에게 있어서 자기실현이란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대극적인 가치들을 융합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참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의식속에 있는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직시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극적 가치들을 융합하고 참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 고양과 영적 성장은 바로 진정성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

10) 머리스타 저, 김창한 역(2016)『융의 영혼의 지도(Jung's Map of the Soul)』문예출판사, pp.160-161

11) 하학봉(2014)『영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3

12) 김태연(2019)『슈라이어마허 『종교론』의 수용사적 의미』『신학연구』74, pp.65-94

진정성 추구 여행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성 추구 여행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다수의 평균적인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항상 보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어떤 계기가 되면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행을 개시하는 자이다. 따라서 진정성 추구 여행자들은 개인적인 속물주의뿐만 아니라 현대세계의 일상성에 대한 시대적 저항의식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진정성 추구 여행자들은 숭고 경험을 통해 영적 성장을 기뻐한다는 점이다. 진정성은 어떤 확정된 윤리적 목적에 도달하는 현실태가 아니라 개인의 정신 고양과 자기다움을 회복시키려는 열망에 의해 우연하게 경험되는 가능태이다. 따라서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자명한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면에 깊숙이 잠자고 있는 무의식을 일깨우고 내면에서 대극적인 가치를 합일하는 고통을 거쳐야한다는 점이다. 숭고 경험은 격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의 고양이나 카타르시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영성이나 종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진정성 추구 여행자들은 자기실현 과정을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란 에고(ego)를 의미하는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면서 총체적 판단을 하는 심리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존재론적 변화란 단지 의식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깊은 참회를 통해 무의식 차원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 3. <깊은 강>의 진정성 추구 여행 모티브

#### 3.1 서사구조와 서사공간의 요약

여행의 동기는 여행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여행의 유형 또한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틀에 박힌 일상성에서의 탈출이나 자아발견(혹은 자기실현)과 같은 요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여행 동기일 것이다. 또한 여행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일상성에 의한 소외, 여행의 준비, 목적지로 떠남과 도착, 다양한 여행경험, 귀환, 귀환 후 기억의 소환으로 구성된다. 『깊은 강』에 나타난 여행자들의 진정성 모티브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강』의 서사 구조와 서사공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서사구조 분석은 내레이터와 등장인물의 독백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사건의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여행자들의 여행 동기와 여행경험의 유형, 그리고 여행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서사공간에 대한 묘사는 소설의 주요 줄거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 독자들은 소설의 서사를 읽어가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주로 사색과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의 물리적 이미지를 대입해 가면서 줄거리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사건이나 사색의 공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만큼 작품에 대한 울림과 반향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설에 있어서 서사 공간을 명확히 하는 일은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소설에 있어서 공간 묘사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깊은 강』에서는 목적지의 선택이나 여정을 확정하는 구체적 준비 단계 이전에 네 명의 여행자, 이소베(磯辺), 미쓰코(美津子), 누마다(沼田), 기구치(木口) 각자의 일상생활의 단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즉 이소베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고, 미쓰코는 연애를 하던 오쓰를 버리고 사업가인 야노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 그리고 누마다는 결핵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기구치는 2차 대전 중 미얀마에서 끔찍한 경험을 같이 했던 전우 쓰카다(塚田)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경험을 한다. 소설의 1장은 도입부로서 각 등장인물들이 세속적인 일상을 영위하면서 아내의 죽음, 전우의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음,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에 의해 고통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특히 미쓰코의 경우에는 한 때 대학시절 사귀었던 오쓰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여행하는 장면을 포함시키고 있다. 네 명의 주요인물들이 여행 전 세속적인 일상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색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일상성에서의 상실감과 소외에 관한 서사와 서사 공간

여행자	공간	공간 서사 요약
이소베	아내의 병실과 진료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과 밖에서 들리는 군고구마 장사의 낭랑한 목소리의 대조 자신이 죽은 후에 환생할 테니 반드시 찾아달라는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도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쓰코를 불안하게 느끼다.
	화장장	줄지어 들어가는 관들의 하나인 아내의 관이 타는 소리가 마치 철교를 달리는 신칸센과 같이 들리다.
	집	아내와의 관계가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고받는 의무적인 관계였음을 인식하다.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하다. 버지니아 대학 의학부에 편지를 보내 전생애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다.

미쓰코	대학 캠퍼스와 미쓰코의 방	미쓰코가 오쓰로부터 신앙을 빼앗고 육체적 쾌락으로 몰아넣기 위해 그를 부추긴다. 결국 미쓰코는 오쓰를 버리고 그를 절망으로 빠뜨린다.
	프랑스 보르도 행 열차	미쓰코가 남편 야노와 함께 신혼여행을 가다. 그녀는 오쓰가 프랑스의 어떤 신학교를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 야노는 자동차와 골프, 일밖에 모르는 남자다. 미쓰코는 『테레즈 데케이루』에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무난하게 사는 남편 베르나르에 권태를 느껴 독살하려했던 테레즈와 동일시하다.
	랑드 지방의 생 생포리앙	미쓰코는 테레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테레즈 데케이루』에 나오는 문학 공간을 탐방하다.
	리옹	수도원 생활을 하는 오쓰를 만나다.
누마다	텔리행 일본항공 기내	이소베와 짧은 대화가 이어지다
	중국의 다렌	중국인 소년 리와의 우정, 리와의 이별과 부모의 이혼으로 상실감이 컸던 시기에 검둥이가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 검둥이와도 이별하다.
	병실	결핵으로 입원하기 전 코뿔소 새와 영혼의 교류를 나누었는데 이별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아내가 구관조를 사다 준다. 수술이 끝난 후 구관조가 죽자 누마다는 구관조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대신 죽었다고 믿는다.
기구치	텔리행 일본항공 기내	여행가이드 에나미와의 짧은 대화. 비행기가 태국의 정글을 지날 때, 밀림의 바다, 퇴각, 말라리아, 기아와 절망으로 상징되는 미안마의 정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다.
	죽음의 거리	부상자들의 아비규환과 일본 병사들의 시체가 즐비한 죽음의 거리를 소환하다.
	숲속의 오두막	기구치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쓰러지자 쓰카다가 곡물 죽과 인육을 먹이다.
	쓰카다의 병실	쓰카다는 자신이 전우의 인육을 먹고 기구치에게도 먹였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다. 그에게 외국인 봉사자 가스통은 이러한 내용을 고백한 유일한 대상이다.

6장부터 9장까지는 여행자들이 여행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가졌던 존재론적 의문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장 <강변동네>는 버스로 텔리 공항으로부터 최종목적지인 바라나시로 가는 과정에서 여행자들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리고 7장 <여산>, 8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9장 <강>은 네 명의 여행자들이 바라나시, 나크사르 바가비티 힌두 사원, 그리고 갠지스 강으로 이동하면서 여행 경험이 수행되는 부분이다. 네 명의 주요인물들이 여행 중에 여행 공간에서 일어난 숭고 경험과 영적성장 경험은 <표>와 같다.

## &lt;표2&gt; 승고경험과 영적성장에 관한 서사와 서사 공간

공간	여행자	공간 서사 요약
바라나시로 이동하는 버스	이소베	창밖에 어둠이 깔리자 이소베는 마침내 환생의 나라에 들어왔음을 느끼다. 나를 찾으라는 아내의 유언이 꺾전을 울린다. 이소베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받은 편지를 손으로 만져보다.
	미쓰코	창밖에 깔린 칙흙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떠올리다. 또 다시 남편을 독살하려 했던 테레즈의 그림자를 생각하며 동일시하다. 그리고 오쓰를 생각하다.
	기구치	달과 별이 안 보일만큼 깊은 숲속을 달리는 버스창문 밖을 보면서 끔찍한 전장인 미안마 정글을 떠올리다.
	누마다	인도의 자연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다.
	버스 안 모든 여행자들	바라나시의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모든 여행자들이 일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느끼다. 미쓰코는 그 빛 한 점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오쓰가 있다고 생각하다.
나크사르 바가비티 사원	미쓰코	여신상이 있는 습기 차고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자신의 어두운 무의식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다.
	에나미	차문다가 묘지에 살고 있으며 심한 병고와 아픔을 견디면서도 쭈그러든 젓가슴으로 인간에게 젖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다.
	누마다 이소베 기구치	처음에는 흥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상을 보고 세 여행자들은 모두 어두운 과거를 상기시킬 만큼 불쾌감이 들다. 그러나 에나미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 여행자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흡족해 하면서 저마다 상념에 잠기다.
겐지스 강	에나미	겐지스 강 인근 가트로 몰려드는 순례자들은 어머니 강인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다. 그리고 에나미는 이곳을 죽기 위해 모여드는 도시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기구치	겐지스 강이 죽기 위해 오는 길이라는 말을 들은 기구치는 죽은 병사와 신음하는 부상병들이 즐비한 미안마의 죽음의 거리를 소환하다. 죽음의 거리를 통과하면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겐지스 강에 이르면 환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
	이소베	이소베는 구걸하는 소년들을 보고 환생한 자신을 찾으라고 한 아내의 필사적인 목소리를 듣다.
	누마다	겐지스 강가에 즐비한 화장터들, 구걸하는 소녀들과 문둥병자들,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아웃카스트, 물에 몸을 담그고 합장하는 사람들, 화장한 후 강물에 떠내려가는 시체들이 혼재된 겐지스 강을 죽은 자들의 내세라고 생각하다.
	미쓰코	미쓰코는 청정과 불결, 성과 속, 자비와 잔인함이 공존하는 힌두의 세계에 더 머물고 싶어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 자신이 놀랐다. 그리고 오쓰가 이 곳에서 길가에서 쓰러져 죽은 이들을 화장터까지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오쓰의 희생과 순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서 네 여행자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어떻게 승화시켜 존재론적 변화에 이르게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 서사공간은 갠지스 강과 인근의 화장터이다. 네 명의 주요인물들이 여행 말미에 느낀 존재론적 변화를 묘사한 부분은 <표3>과 같다.

<표3> 존재론적 변화에 관한 서사와 서사 공간

공간	여행자	공간 서사 요약
바라나시	미쓰코	이름 없는 시신들을 화장터로 나르는 일을 하면서 예수가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오쓰의 고백을 듣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리고 바라나시가 죽은 뒤 그곳에 뿌려지기 위해 순례하러 오는 성스러운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소베	아내로 환생한 소녀를 찾아주겠다고 돈만 챙겨간 점쟁이를 용서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보듬어 안고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갠지스 강을 보면서 아내로 환생한 소녀도 이 강물에 섞여 흘러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갠지스 강	미쓰코	갠지스 강은 힌두교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강, 깊은 강이라고 생각한다. 산조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오쓰의 숭고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화장터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수녀의 말을 듣고 보잘 것 없고 멸시받으면서도 낮은 데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낀다.
	기구치	마음속에 줄곧 간직하고 있던 모든 비밀을 갠지스 강에서 비로소 털어놓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인간의 행동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어떤 악도 참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마다	폐결핵으로 2번째 수술 후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대상이었던 구관조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구관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죄책감을 떠올리면서 조류보호구역에서 구관조를 새장에서 놓아주는 의식을 거행한다.

### 3.2 소설에 나타난 진정성 추구 여행 모티브

본 소설의 첫 문장인 “군고구마, 군고구마야, 딱딱딱한 군고마야”는 이소베가 진료실에서 의사로부터 아내의 암을 선고받았을 때 병원 밖에서 들렸던 소리다. 이 소리는 그 뒤에 이소베가 병원 복도를 걸어갈 때, 그리고 병실에서도 계속 등장한다. 이는 그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닥쳐도 세계의 일상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흘러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이소베가 의사의 암 선고를 듣고 엘리베이터 옆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있을 때 명랑한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는 간호사들을 묘사한 것도 이소베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묘사이다. 작가는 이소베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부부처럼 큰 풍파 없이 무난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평범한 남편으로 표현하였다. 즉 작가는 이소베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성을 선취하기보다는 평균적인 일상성에 빠져 비 본래적 삶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중년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쓰코가 어떤 매력도 느낄 수 없는 사업가 야노와 결혼한 것도 동일한 차원의 속물적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소베는 버지니아 대학의 학부 연구소에 편지를 보내 환생에 관한 문의를 한 결과 인도의 바라나시 인근 어디엔가 죽은 아내가 환생한 소녀가 살고 있다는 답장을 받았다. 이소베가 인도 여행을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답장 때문이었다. 아내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소베에게는 청천 병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인데 거기다가 아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환생할 테니 자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떠난 것이다. 이때부터 이소베는 자신의 삶과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이는 자신의 비 본래적 삶에 대한 성찰이며 본래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계기이기도 하다.

미쓰코는 한결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혐오를 느낀다. 그리고 차, 골프와 일 밖에 모르고 음악회와 미술전람회보다는 쇼핑과 술집에만 관심을 쏟는 남편을 보면서 『테레즈 테케이루』에 나오는 테레즈의 남편 베르나르를 떠올린다. 미쓰코는 아무런 사유 없이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권태로운 삶을 사는 베르나르를 독살하려했던 소설속의 여주인공 테레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미쓰코와 테레즈는 모두 남편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다는 점에서 남편보다 더 속물적 삶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쓰코는 신혼여행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에도 남편을 파리에 놔두고 소설 『테레즈 테케이루』에서 테레즈가 걷던 현장인 랑드 지방의 생 생포리앙으로 떠난다. 미쓰코가 랑드로 작은 여행을 한 이유는 취향이 전혀 다른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이 권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일시하는 소설의 여주인공 테레즈의 발자취를 탐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리옹에서 수도권 생활을 하고 있는 오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미쓰코가 소설 『테레즈 테케이루』의 문학공간이면서 실제적 장소이기도 한 랑드를 방문한 것은 독서 중에 느꼈던 작품에 대한 울림과 감동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작가인 앤도 슈사쿠도 1951년 8월 『테레즈 테케이루』의 무대인 랑드 지방을 실제로 도보로 여행한 바 있다.

3장 <미쓰코의 경우>에서 미쓰코는 그녀의 내면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아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비록 타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덧씌워 상처를 주지만 그 어둠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지속적으로 고뇌하는

면을 보인다. 특히 미쓰코는 예술에 취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풍파도 일으킴 없이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와 세속적 관습에 순응하며 사는 구태의연한 삶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구태의연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움으로, 현대세계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인 도구적 이성으로부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는 심미적 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삶 혹은 본래적 삶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쓰코는 생 생포리양의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부터 우연치 않게 리옹의 일본 유학생이 호텔에 머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리옹으로 향한다. 오쓰와 만날 약속을 하고 손 강 인근의 어둡고 쓸쓸한 풍경을 보고 대학시절 채플린 쿠르톨 하임과 기도대 위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의 한 구절, 이사야서 53장 2절을 떠올린다. “그는 아름답지도 않고 위엄도 없으니 비참하고 초라하다(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미쓰코는 소설 전체를 통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4번이나 언급한다. 이는 남자로서 어떤 매력도 없는 오쓰를 의미하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 받는 종인 예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구절은 대학시절 미쓰코가 오쓰를 만나기 위해 쿠르톨 하임 채플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도대 위에 펼쳐진 성경책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구절이다. 4장 <누마다의 이야기>는 작가 엔도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많이 적용한 부분이다. 누마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 이동에 따라 중국 다롄으로 떠났으며 그 곳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을 따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데 이 부분은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과 이동궤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누마다가 폐결핵으로 세 번이나 수술대에 올라 결국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 것도 실제로 작가가 1960년과 1961년에 겪었던 일이었다. 기구치의 경우에는 주로 전쟁 중에 일어난 끔찍한 기억과 인육(人肉)을 먹었던 전우 쓰카다의 트라우마, 그리고 쓰카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가스통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즉 쓰카다는 전쟁 중에 인육을 먹고 쓰러진 기구치에게 인육을 주었던 사실을 기구치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진정으로 참회하면 어떤 악행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스통의 진심어린 위로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이상의 네 여행자의 일상성과 고통 경험은 앞으로 전개될 여행 경험을 통해 진정성 없는 삶으로부터 진정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된다. 이와 같이 1장, 3장, 4장, 5장은 각각 평균적이고 세속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이소베, 미쓰코, 누마다와 기구치가 겪은 과거의 고난에 의한 상실감과 상처, 그리고 마음속의 어둠을 적나라하게 밝힌 부분이다. 이 같은 등장인물들의 비본래성(비진정성)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정성 추구 여행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여행의 준비 과정은 2장 <설명회>에서 묘사되고 있다. 네 명의 여행자를 포함하여 스무 명 남짓 중년층들이 모였는데 여행 가이드인 에나미는 인도의 여신 칼리와 차문다를 소개한다. 선과 악, 미와 추, 그리고 잔혹함과 숭고함이 혼재되어 있는 여신으로 소개하자 미쓰코는

여신들의 모습으로부터 그녀가 줄곧 찾아왔던 마음속의 어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또한 칼리와 차문다 신에 대한 소개는 실제로 여행자들이 숭고경험과 영적 성장을 이끌어 인도 여행을 의미 있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소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복선이라 할 수 있다.

바라나시, 바가비티 사원, 그리고 갠지스 강에 이르는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6장 <강변동네>로부터 9장 <강>까지의 서사에서 여행자들이 차문다 여신의 숭고함과 갠지스 강에 모여든 다양한 군상들을 보고 서서히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바가비티 사원의 흥측스럽게 생긴 여신상을 관람한 이후 네 여행자들은 처음에는 생경하고 공포감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여행 가이드 에나미의 진심어린 설명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상실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를 모두 털어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녀는 인도인의 괴로움을 전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병고와 죽음과 굶주림이 이 상에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고통 받아 온 모든 질병에 이 여신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혈떡이면서 쭉그러든 젖가슴으로 인간에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모 마리아처럼 청순하지도 우아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의상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추하고 늙었고 괴로움에 혈떡이며 그걸 건디고 있습니다. (깊은 강, pp.210-211)

이 같은 느낌은 일종의 숭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숭고는 미적 경험의 일종이다. 즉 어떤 외부 대상이 직관을 통해 감성계로 들어오면 상상력이 오성이나 이성과 자유로운 유희를 유발하여 생겨나는 쾌감을 미적 경험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의 대상은 균형과 비례, 고요와 평정을 특징으로 하지만 숭고의 대상은 몰형식, 추함과 경악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직관으로 수용된 대상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흥측할 경우 처음에는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만 이성과 맞닿게 되면 희열이 한꺼번에 솟구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를 숭고라고 한다. 숭고의 대상은 먼저 인간을 압도하면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내부의 이성이 고통과 좌절을 해명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쾌감으로 변전된다. 숭고의 정서는 인간의 내면을 공포와 경악으로부터 희열과 쾌감으로 뒤바꾼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catharsis)의 정서와 유사하다. 카타르시스는 연민과 공포를 자아내는 비극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몰입을 통해 무아경에 빠지는 엑스터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서다. 네 여행자들이 차문다 여신상을 보고 느낀 감정은 영적인 성장과 자기변화를 이끄는 숭고 혹은 카타르시스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죽음과 삶, 선과 악, 청정과 불결, 성과 속, 자비와 잔인함이 공존하는 혼돈스러운 갠지스 강을 보고 처음에는 공포와 경악스러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악과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에 희열과 쾌감을 느낀 것은 여행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은폐되어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어 자기성찰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상처와 상실감은 영원히 무의식속에 잠자고 있을 것이며 상처와 상실감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덧씌우는 대신에 용기 있게 직면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여행자들이 오쓰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은 10장 <오쓰의 경우>, 11장 <진실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12장 <환생>, 그리고 13장 <그는 아름답지도 않고 위엄도 없으나>에 나타난다. 특히 마지막 장인 13장의 부제목은 미쓰코가 대학시절 우연히 마주친 성경구절 이사야서 53장 2절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 작품에서 여행자들의 자아성찰과 존재론적 전환은 여행자들의 직접적이고 명료한 서술에 의해 묘사된 것이 아니라 오쓰의 이타적인 행위나 갠지스 강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레이터의 공간 묘사, 그리고 여행자 개인의 고백과 같은 간접적인 서술 형식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이소베의 존재론적 전환의 경우 아내로 환생한 소녀를 찾지 못하게 되자 갠지스 강변 바위 위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공간을 묘사하는 서사 속에 구현되었다.

강은 그의 외침을 받아내고 그대로 묵묵히 흘러간다. 그런데 그 은빛 침묵에는 어떤 힘이 있었다. 강은 오늘까지 수많은 인간의 죽음을 보듬으면서 그것을 다음 세상으로 실어 갔듯이 강변의 바위에 걸터앉은 남자의 인생의 목소리도 실어 갔다. (깊은 강, p.285)

이소베는 깊은 슬픔에 싸여 정결해지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갠지스 강을 향해 ‘어디로 갔어?’라고 외치자 작가는 갠지스 강의 무상성과 침묵, 그리고 죽음을 보듬으며 흘러간다는 공간묘사를 통해 이소베의 아내가 환생한 소녀도 이 강물을 따라 피안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줌의 재로 갠지스 강에 뿌려지기 위해서 화장장까지 당도하지 못하고 습기와 오물이 질펀한 길에서 웅크린 채 혈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화장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는 오쓰의 행위를 통해 작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미쓰코는 갠지스 강 화장장을 목격하고 숨을 거두기 위해 순례하러 오는 바라나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고 묵묵히 흐르는 갠지스 강을 깊은 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갠지스 강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갈과 코브라에게 물어뜯긴 여신 차문다의 과거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명한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 산조의 사진 찍는 행위로 인해 인도인들에게 쫓겼을 때 이를 대신 막아 주다가 죽음에 이른 오쓰의 행적을 목격하고 울부짖는 미쓰코를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서사들을 제시함으로써 미쓰코가 인도여행을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겪었으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기구치는 전우의 인육을 먹은 쓰카다의 죽음을 떠올리며 인간의 행위에는 선악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어떤 악행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직 가스통에게만 털어놓고 마음의 짐을 덜고 죽은 쓰카다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줄곧 마음에 담아 온 그림자를 남에게 얘기하기 싫었는데 불현듯 갠지스 강변에서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고 표명한다. 즉 이 순간은 죄의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며 이 같은 심리적 해방감은 갠지스 강에 오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경험이다. 기구치 역시 미얀마 전장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자신의 무의식적 그림자로 간직하고 있었던 터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환생, 죽으러 오는 가난한 이들과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화장장으로 데려가는 이들이 혼재한 갠지스 강에서는 세속적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존재의 열어젖힘의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쓰가 오물이 널려있는 축축한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뚱이 하나 화장할 땀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아웃카스트들이다. 경험이 많은 오쓰는 이들이 거리의 어떤 장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빛이 조금 새어드는 외지고 좁은 골목길이다.

그들은 인간의 모양새를 하고서도 인간다운 시간을 한 조각도 갖지 못한 인생이며 갠지스 강에서 죽는 것만을 마지막 소망으로 삼아 마을에 간신히 당도한 자들이다. 오쓰는 그들이 이 마을의 어느 장소에서 쓰러져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늘 사람 눈이 닿지 않는 좁다란 샛길. 조금 벌어진 벽 틈으로 바깥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장소였다. (깊은 강, pp.289-290)

작가는 그 이유를 죽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한줄기 빛에 기대를 건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신에게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갖게 되는 종교성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작가는 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쓰코와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돌봐주는 수녀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사랑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쓰코는 백인 수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수녀는 깜짝 놀란 듯 푸른 눈을 커다랗게 뜨고 미쓰코를 응시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

요?” 그러자 수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지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그것밖에....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걸요. 저희들은.” (깊은 강, p.324)

수녀는 미쓰코가 너무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 생각하였다. 즉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묵묵히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죽음을 돌봐주는 일이야말로 종교의 종류나 교리와 상관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미쓰코는 예수가 오쓰와 수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안에 환생해 있다고 믿었다.

## 4. 나가는 말

본고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 『깊은 강』을 일종의 진정성 여행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진정성이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의미적인 개념이지만 본고에서는 철학적 의미를 차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관광학계에서는 진정성을 여행의 유형에 접목하여 개념을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오지 여행, 삶의 조건이 철저히 배제된 사막이나 극지방 여행, 장거리 도보 여행과 같이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지만 정신고양과 자기실현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여행을 통틀어 진정성 추구 여행이라고도 한다. 엔도의 『깊은 강』은 과거에 극단적인 고난과 아픔을 겪고 지금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네 명의 여행자들이 각자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인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선행연구들은 기독교라는 유일신교와 종교 다원주의적 신 개념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인도여행을 하나의 진정성 여행으로 간주하고 『깊은 강』이라는 여행서사에 구현된 진정성 모티브를 분석하였다. 진정성은 사회공동체가 요구하는 지배적 윤리와 구성원의 자기 진실성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이며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의 본래성(authenticity)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래성이란 인간의 근원적 본성인 사람다운 본성을 의미하며 평균적 세인들처럼 존재에 대해 어떤 고민도 없이 안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죽음에의 선구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해 사람다운 본성으로 가까이 가려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성 혹은 본래성은 21세기의 사업가적 인간의 삶과는 대척점에 있는 삶의 방식이다. 본고에서 진정성 추구 여행은 “세기 경제인간, 즉 자신의 몸과 노동과 삶을 자본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익성 있게 관리하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언기 위해 여행을 개시하고 여행 장소와 대상에 대한 사유와 해석을 통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진정성 추구 여행자의 특성을 일상성에 대한 저항, 숭고와 영적 성장과 존재론적 변화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진정성 여행자의 특성에 근거하여 『깊은 강』여행자들이 경험한 진정성 추구 여행 모티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네 여행자(미쓰코, 이소베, 기구치, 누마다) 모두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속에 지우기 힘든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경제인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비 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육체적 불편함과 질병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참 자기를 찾아 인도 여행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일상적이고 퇴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래적인 삶을 위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진정성 추구 여행을 선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깊은 강』의 1장-5장에서는 네 명의 여행자들이 진정성이 부재한 평범한 삶속에서 자신의 상실감과 시대적 고통, 과거 상처로 인한 고통, 무의식적 어둠에 의한 고통에 시달리는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네 명의 여행자들이 환생과 영혼(이소베), 전우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자신의 죄 사함(기구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구관조에 대한 애도(구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어둠에 대한 의구심(미쓰코)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다. 6장-9장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청정과 불결, 시체와 배설물, 구걸하는 자와 관광객, 그리고 죽기 위해 오다가 쓰러진 자와 이를 화장터로 날라주는 자가 얽히고설킨 풍경을 통해 자신들의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숭고와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여행자들은 경악을 일으킬 만큼 추한 모습을 한 차문다 여신상을 통해 자신의 악몽 같았던 과거의 기억을 중첩시킴으로써 숭고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10장-13장에서 미쓰코는 숨을 거두기 위해 순례하러 오는 바라나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묵묵히 흐르는 갠지스 강을 ‘깊은 강’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갠지스 강의 무상성과 침묵, 그리고 죽음을 보듬으며 흘러간다는 공간묘사를 통해 이소베의 존재론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기구치는 갠지스 강변에서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털어 놓음으로써, 누마다는 구관조를 자연보호구역에 놓아주는 자기만의 의례를 통해 진정성 없는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고는 엔도의 『깊은 강』의 등장인물들이 여행자로서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진정성이 부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거치는가를 조망하기 위한 연구다. 여행자들이 여행 전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기하는 심리적 문제와 여행 중에 경험하는 진정성, 그리고 여행의 말미에 여행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설의 전체적인 서사구조와 서사공간을 비교적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參考文獻】

遠藤周作(1999)『深い河』『遠藤周作全集4』新潮社  
김승철(2016)「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 흔적과 아픔의 문학 (19)」『기독교사상』293호, 대한기독교서회 pp.119-135  
김태연(2019)「슬라이어마허 『종교론』의 수용사적 의미」『신학연구』74, pp.65-94  
머리스타인 저, 김창한 역(2016)『융의 영혼의 지도(Jung's Map of the Soul)』문예출판사, pp.160-161  
변찬복(2015)「진정성 추구 여행의 미학적 담론」『인문과학연구』23, pp.427-447  
엔도 슈사쿠 저, 유숙자 역(2007)『깊은 강』민음사  
육근화(2000)「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론 : 종교 다원주의적 신앙관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9, pp.341-356  
육근화(2017)「엔도 슈사쿠 작품에서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고찰」『일본문화학보』72, pp.113-130  
윤나리(2016)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연구 : ‘기억’의 재생과 ‘삶’의 해체」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6-32  
이영화(2019)「엔도 슈사쿠 문학의 종교에 대한 틀 깨기」『일본근대문학연구』63, pp.87-102  
조규철(2002)「하이데거의 사유근원과 현존재의 본래성」『철학논총』30, pp.379-399  
조정환(2015)『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pp.37-38  
하학봉(2014)「영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3  
Cohen, E.(2004), Contemporary tourism: delivery and change. Oxford-Elsevier, pp.74-80  
Golomb, J.(1995), In Search of authenticity, from Kierkegaard to Camus, NY, Routledge. p.8  
MacCannell, D.(1976), The tourist, New York, Shocken. pp.7-11  
Steiner C. J. & Reisinger, Y.(2006), Understanding existential authenticity, 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pp.349-370  
Wang, N.(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pp. 299-318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논문투고일 : 2019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0년 02월 05일  
2차 수정일 : 2020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7일

---

**<要旨>**


---

##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에 나타난 진정성 추구 여행 모티브

변찬복

본고의 연구목적은 등장인물들의 인도 여행을 하나의 진정성 추구 여행으로 보고 어떤 양상의 진정성 모티브가 구현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진정성의 철학을 살펴보고 진정성 추구 여행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여행자인 등장인물들이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성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여행 전 단계인 비본래적인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저항, 여행 중의 숭고와 영적 성장 경험, 그리고 존재론적 전환의 순서로 여행자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행자들은 산 자와 죽은 자, 청정과 불결, 시체와 배설물, 구걸하는 자와 관광객, 그리고 죽기 위해 오다가 쓰러진 자와 이를 화장터로 날라주는 자가 얽히고설킨 풍경을 통해 자신들의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숭고와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여행자들은 경악을 일으킬 만큼 추한 모습을 한 차문다 여신상을 통해 자신의 악몽 같았던 과거의 기억을 중첩시킴으로써 숭고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 Authentic travel motives embodied in Endo Shusaku's novel 『Deep River』

*Byun, Chan-B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uthentic travel motives embodied in Endo Shusaku's 『Deep River』. To do this end, the philosophies relevant to authenticity were studied and authentic travel was temporarily defined. It was analyzed how four travelers and characters healed their senses of loss, wounded mind and how they experienced authenticity, which consequently led to ontological conversion. The author analyzed travelers' not only psychological resistance to their inauthentic lives before travel but also the sublime experience and spiritual growth after travel. The travelers experienced the extremely puzzled scenery such as the dead and the living, cleanliness and insanitation, bodies and excreta, beggars and tourists, the fallen and the carrier who take the fallen to crematorium. The study found that they recalled their own shadows which had been concealed in the deep unconsciousness and finally experienced the sublime and the spiritual growth. In addition, the goddess Chamunda who had extremely ugly appearance made the travelers recall nightmare like memories. However, it consequently led to their experiences of spirituality and sublimity.